

공사장 41.5도 폭폭 찌는데... “시간 내 일 마치려면 못 쉬어요”

폭염 속 야외노동자 일터 가보니
전동킥보드 수거배치 노동자도
건설현장 콘크리트 작업 노동자도
‘주기적 휴식’ 지침은 그림의 떡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152명
쿠광 노조 “연차 휴식” 집단행동

“30분만 있어도 몸 앞뒤 할 것 없이
지도 그린 것처럼 땀에 절어요. 보이시
죠?”

31일 오후 1시 ‘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김모(53)씨
가 티셔츠에 땀이 말라붙어 생긴 소금
기자국을 내보였다. 15년째 건설노동
자로 일하는 김씨는 “5년 전만 해도 하
루에 한 번만 옷을 갈아입으면 됐는데
요즘은 더위가 심해져 두 번은 환복해
야 한다”며 “튼튼한 저도 일하다 머리
가 핏 돌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
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지
만, 그가 일하는 공사장 온도는 취재
시작 30분 만에 41.5도까지 치솟았다.

장마가 떠난 빈 자리를 폭염이 매
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0개 지역 중 178곳에 폭염특
보가 발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록적인 폭염으로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에서 휴대용 온도계로 기온을 측정할 결과, 41.5도(오후 1시 3분)를 기록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들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안
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분위기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
건공단의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
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가장 뜨
거운 오후 2~5시엔 옥외작업을 최소화
하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옥외노동자들에게 주기적 휴

식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해진
작업량을 채워야 하는 탓이다. 가이드
라인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까
닭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하루 9시간
씩 전동킥보드 수거배치 일을 하는 양
영모(52)씨는 “회사에서 ‘더우면 그늘에
서 휴식하라’는 안내문자 정도는 보내
지만,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재계약이 위
태롭다”며 30kg짜리 킥보드를 쉼 새 없



31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한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이트럭에서 내렸다. 관악구에서바다 미
장 작업을 하던 남모(63)씨도 “아무리
더워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작업을 빨
리마치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야 해서
쩔 수 없다”고 푸념했다. 작업자들이 더
위를 식히는 도구는 부채 하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시간 야외 노
동으로 인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
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6~28일 사

동안만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78명이
나왔다. 2018~2022년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이 원인이 된 산재 피해 노동자도
152명(사망 23명)에 이른다. 이를 연속
폭염특보가 발령된 6월 19일엔 대형마
트인 코스트코 매장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업무를 하던 20대 노동
자가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증상이
유발한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망자가 “병을 숨긴 것 아
니냐”면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

말뿐인 지침보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
울에서 5년째 택배 일을 하는 이모(35)
씨는 “폭염이 유발한 과로사 등의 문제
가 반복되다 보니 회사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배송량이 많은 화요일은 거
의 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대전 유
성구의 한 빌라 경비소장을 맡고 있는
최모(76)씨도 “(휴식 시간) 매뉴얼이 있
는지도 몰랐다. 땀을 바가지로 빨뽕 흘
려도 일감 떨어질까 봐 잘 못 쉰다”며
휴식권 보장을 바랐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노조도
있다. 쿠광 물류센터노조는 폭염 시 휴
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1일 하루 연
차 등의 방식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
일부터는 출근하되, ‘체감온도가 33도
일 때 시간당 10분, 35도일 때 시간당
15분씩 쉬어야 한다’는 고용부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계
획이다. 정성용 쿠광물류센터지회장은
“회사가 무시하는 지침을 현장 노동자
들이 직접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이태원 참사 겪고도... 112 신고 까맣게 몰랐던 재난 컨트롤타워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
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112로 접
수되는 재난 신고에 여전히 실시간 대
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가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
실이 드러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바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
지지 않은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 “미호강 물이 제방을 넘기
시작했다”는 112 신고(7월 15일 오전
7시 56분)는 행안부 상황실로 즉각 보
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상황실로 즉시 보고가 이뤄
지지 않은 것은 이런 종류의 112 신고
가 애초에 ‘실시간 보고 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

부 관계자는 “강물이 넘기기 시작했
다는 것은 대형 재난을 알리는 분명한 현
상”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걸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에 실시간 보고해야 할 근
거 규정이 미비해 그 신고가 행안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행안부가 첫 보고를 받았
던 시점은 지하차도가 침수(오전 8시
40분)된 뒤인 오전 8시 46분 이후였다.
침수 44분 전에 112에 접수된 신고가
신속하게 행안부에 보고됐더라면, 국
가 최상위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가 충북도나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에 즉각 통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6월 5일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이 개정
됐음에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내용
의 신고가 중앙상황실로 전달되지 않
았다는 점이다. 개정 규칙은 ‘중요 치안
상황 발생 및 조치 내용에 대해 알릴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되, 안전 및 자
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즉시 보고 기준
역시도 ‘사망 3명, 부상 10명 또는 물적
피해 5억 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되어 있
다. 결국 행안부 상황실은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경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시간 보고체계 공백을 두고
경찰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

장이.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이 문제
였다는 것은 결과론적 이야기”라며 “재
난관리 주무 기관은 행안부와 소방청
이라서 경찰의 대응은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12를 통한 재난 신고 역시 119처
럼 행안부 상황실에 실시간 공유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태원 참사 당시 안전 주무장관인 행안
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상황 보고를 늦
게 받았던 이유도 112의 행안부 상황
실 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상
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면서도 112상황실 업
무를 국가경찰 몫으로 남겨둔 것은 중
앙정부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112 신고 내용도 중앙정
부와 신속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세종=정민승 기자, 이승엽 기자

폭우 파손 주택 지원금, 최대 2.7배 더 준다

지원 확대, 전파 맨 최대 1억원
수해방지 범정부 TF 구성
“폭우시 재난대응 체계 등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수해 피해 지원금을 대폭 올린 ‘수
해 피해 지원기준 상황확대 방안’을 발
표했다.

우선 실제 건축비에 미달하던 지원
금을 늘렸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
준으로 66㎡(19평)의 경우 2,000만 원,
114㎡(34평) 이상은 3,600만 원 주된
것을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가입자는 최
대 1억2,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들에겐 별도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 기준도
세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

렸다. 사업장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게도 기존 지원금 외 각 시도 재해
구호기금을 통해 200만 원씩 지원한
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
기계·설비도 피해 정도를 따져 지원한
다. 행안부는 재난대책비를 각 지방자
치단체에 긴급 교부,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올해만 적용된
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
런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중
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출범
시켰다. 폭우 시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
제, 주민 대피 등 예방 기준을 비롯해 오
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처럼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도 검토한다.

김재현 기자

스포츠 경험의 넥스트 레벨!

VR, AR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올림픽 종목인 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입니다.

사전 홈페이지 예약
(<http://nextlevel.sports.or.kr>)

인스타 사진 둘러보기
(<https://www.instagram.com/sportsforall2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
바로가기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